

## 미국 여성 건설인의 활동 동향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건설산업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 비중은 꾸준히 확대 되는 추세다. 30여 년 전에는 미국 여성 기술인의 비중은 6.1%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그 비중이 2배로 증가한 12% 수준이다. 건설이 더 이상 남성들만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 잡지인 Engineering News-Record지는 특집 커버 기사로 여성 건설인들을 소개한 바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 건축가, 토목기술자, 구조기술자, 교수, 철근 기능공 등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10명(28세 ~ 58세 사이의 연령)의 여성 건설인들에게 던진 몇 가지 화두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sup>1)</sup>

표 1. 숫자로 본 미국 건설 산업에서의 여성 참여 수준

통계	내용	출처
6.1% vs. 12% (1983년) (2010년)	미국 여성 기술인(Engineer) 비중	National Women's Law Center
18.7% vs. 5.8%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국 엔지니어링 학계의 여성 비중	Catalyst
17% vs. 21% (여성 경영자) (여성 건축가)	미국 건축사무소의 여성 경영자 및 여성 면허 건축가의 비중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2011
7.9% (2007년)	미국 건설기업의 여성 대표자 비중	2007 U.S. Census Bureau
10%	Fortune 500의 건설업계 여성 경영자 비중	Catalyst
10.7% (2012년)	미국 공공건설협회의 여성 회원 비중	APWA 2012

### 건설업계에서 여성에 대한 가장 큰 편견?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는 알피노 쇼퍼(Karen Arpino-Shaffer) 부사장은 여성에 갖는

고정관념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하게 취급 되는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스페인 (Kimberly Spain) 현장 작업 반장은 아직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여성은 약하고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금문교의 엔지니어 수장인 바우어(Ewa Bauer) 책임 기술자는 여성인력이 현명하게 일하는 자세(work smarter, not harder)를 갖춘다면, 남성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개인의 직장 생존력은 성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실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 토목 기술자인 크로포드(Connie Crawford) 부사장은 이제 미국의 건설 업계는 건설 현장 또는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여성 인력과 마주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여성 인력은 건설업계의 모든 부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 건설 산업계에서 한 가지 바꾸고 싶은 일은?

카트리나(Katrina Kudzia) 철근기능공은 화장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건설현장은 남성인력 위주로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크로포드 부사장은 남성 대 여성이라는 틀에 박힌 고정관념 그 자체를 없애고 싶다고 응답했다. 전문건설업체 경영인 폰스(Elizabeth Ponce) 사장은 기존의 고정적 사업 관계에서 탈피하여 신규 사업 관계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구조 기술 전문가 베커(Jan Vacca) 부사장은 여성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과 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다. 단순한 도움은 그들의

1) 본고는 Engineering News-Record지의 2013년 5월 6일 특집 기사, "Women in Construction"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것임.

잠재된 자립성을 저하시키고, 더욱 약화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텍사스 오스틴의 리트(Fernanda Leite)교수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자동화된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빌딩정보모델링(BIM) 기반 또는 3D 모델링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스페인 반장은 본사 대 현장(office vs. field) 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본사와 현장이 이원화된 체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팀 관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은 어떻게?

알피노 쇼퍼 부사장은 건설과 같은 창조적인 산업 영역에서 공적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인정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간의 명상 등을 통해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그녀만의 팁을 전한다. 배커 부사장 역시 가족과 일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많은 경우 그 모두에 실패하는 느낌을 갖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폰스 사장은 또한 일과 업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힌다. 그녀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그 다음이 일이라고 한다. 리트 교수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인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대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고 귀띔한다. 크로포드 부사장은 '본인이 있는 곳에 100% 집중' 하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아이들과 집에 있는 동안에는 100% 아이들에 집중하고 일이 있는 직장에서는 100% 업무에 집중한다고 밝힌다.

### 여성 건설인들은 자신감이 부족한가?

스페인 반장은 건설 산업계에서 여성 인력으로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며, 사전에 탐구하고 학습하여 본인이 속한 그룹을 선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커드지아 기능공은 현재의 건설 현장 분위기에서는 절대 소심해서는 안 되며,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배커 부사장은 직업군을 막론하고 자신감을 성공의 주요한 열쇠로 꼽는다. 실수를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트 교수는 많은 경우 여성들은 의문 부호로 문장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여성 스스로

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자신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그룹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그래야 더 많이 배우고 실력이 향상된다는 아버지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지금까지 가장 큰 도전은?

스페인 반장은 사적인 감정에 몰입되지 않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한다. 감정 제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커 부사장의 경우는 침체된 경기 하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크로포드 부사장은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 진보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삶이 보다 더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유익한 도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도구조차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커드지아 기능공은 대다수의 많은 남성들이 본인에게 친절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은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바우어 책임기술자의 경우, 역경을 이기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고 충고했던 선배를 소개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 순간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죽지 않을 정도의 그 무언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이 실제 작동한다고 밝힌다.

### 업무 중 가장 큰 좌절은?

스페인 반장은 목적이 과정을 합리화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을 좌절시킨다고 말한다. 배커 부사장의 경우 본인의 사업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마련하지 못할 때가 힘들다고 한다. 크로포드 부사장의 경우, 사업의 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 행정적인 업무에 치일 때가 고난의 순간이라고 한다. 리트 교수 역시 행정 관료적인 사무 업무가 많지만, 그 또한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폰스 사장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성별 또는 나이로 자신을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 싫다고 밝힌다.

## 건설산업에 유능한 여성 인력을 유인하는 방안은?

알피노 쇼퍼 부사장은 여성 건설인들이 일과 생활을 동시에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이상, 건설산업의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최근 신세대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페인 반장은 젊은이들이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지식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일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크로포드 책임기술자는 어린아이들이 엔지니어링 세계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FIRST Robotics, ASCE Future City, ACE Mentoring Program 등) 과정에 참여하기를 추천한다. 바우어 책임기술자 역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엔지니어링은 위대한 것이며 또한 매우 즐거운 것이라는 실체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폰스 사장은 가족 같이 편안한 근무 환경이야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이직 없이 건설업계에 오래 정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말한다.

### 맺음말

소개한 10명의 미국 여성 건설인은 '여성이 건설에 적합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건설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여성 건설인들이 겪는 애로 사항은 다양한데,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여성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여성들이 잠재된 역할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원태 e-mail: wontkim@cerik.re.kr